

아이파크몰, 크리스마스 소품·장난감 할인 이벤트

아이파크몰은 25일까지 '크리스마스 선물 대축제'를 연다. '2016년 브랜드 고객충성도 1위' 선정을 기념해 다채로운 이벤트와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 빠른 속도로 버튼을 눌러 트리를 밝히면 선물을 주는 '성탄 트리 점등 이벤트'가 열린다. '크리스마스 홈데코 특별전', '크리스마스 산타선물전'을 통해 크리스마스 소품 및 장난감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유통 빅3 가세...면세점 무한경쟁

〈현대·롯데·신세계디에프 추가선정〉

신규사업자 지난 3분기 수백억 적자
송객·특허수수료 갈수록 오를 전망
면세점 13곳 무한경쟁...밀리면 끝

‘현대백화점의 등장, 롯데의 기사화생, 그리고 SK의 쓸쓸한 퇴장.’

면세점 무한경쟁의 막이 올랐다. 관세청이 17일 저녁 발표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추가특허에서 현대백화점면세점,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등이 선정되면서 ‘유통 3차대전’이라고도 불렀던 기업들의 격전이 마무리됐다.

이번 3개 사업자를 포함해 지난해와 올해, 세 차례에 걸친 면세점 특허심사를 통해 서울 시내 면세점은 모두 13개가 됐다. 2~3개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던 과거와는 경쟁구조 자체가 다른 ‘레드 오션’이 도래한 것이다.

● ‘유통 빅3’ 모두 등장...긴장하는 신라
먼저 현대백화점의 입성이 눈길을 끈다. 롯데, 신세계와 함께 유통업계의 ‘빅3’로 불리면서도 지난해 실패의 쓴잔을 맛보았던 현대백화점은 보란 듯이 최고점수(801.50점)를 받으며 사업권 확보에 성공했다. 이로써 잠실월드타워점 영업권을 되찾은 롯데, 반포 센트럴시티점을 통해 강남 진출에 성공한 신세계 등 백화점을 지닌 ‘유통 빅3’가 모두 면세점사업에 진출했다.
매출1위를 자랑하는 롯데면세점 소

공점 사례에서 보듯 백화점과 면세점이 함께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상당하다. 후발주자지만 유통분야에서 막강한 전문성과 영업력을 지닌 현대백화점은 다른 업체들에게 무척 부담스런 존재다. 당장 업계 2위 신라면세점으로서는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HDC신라가 이번에도 강남 진출에 실패하면서 새로운 경쟁구도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시장에 진입한 한화와 두산 역시 사업이 채 자리 잡기도 전에 등장한 버거운 강적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다.

● 면세점 무한경쟁시대...밀리면 끝

면세점은 그동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그러나 최근의 영업상황을 보면 ‘황금알’과는 거리가 멀다. 신세계디에프, 갤러리아63, HDC신라, SM면세점 등 신규사업자 모두 지난 3분기 수백억 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두타면세점도 상반기 16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신세계면세점과 SM면세점은 영업이익률이 -30%였다. 꾸준한 상승세의 시장을 바탕으로 안정된營業을 할 것이라 기대와는 동떨어진 결과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늘어난 면세점들의 관광객 유치경쟁으로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 수수료’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최근 면세점 특허수수료

율을 기존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 규모에 따라 0.1~1.0%로 높이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두 면세점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여기에 면세점시장의 핵심인 중국인 관광객은 7월 91만7900명을 정점으로 4개월째 줄어들면서 근심을 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과거에는 업체들이 시장을 사이 좋게 나눠 갖는 구조였지만, 면세점 수가 크게 늘어난 지금은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 특검 수사 등 난세 수도록

특검정국과 최순실 재판도 큰 변수다. 특허와 관련해 몇몇 기업의 로비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관세청은 이번 심사를 강행했다. 정치권, 특히 야권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만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중에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되면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며 사후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공롭게도 의혹을 받은 기업 중에 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최순실 게이트’ 재판과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이 생길 수 있다.

한편 17일 심사에서 관세청은 서울과 부산, 강원지역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중소중견기업 신규사업자로 탐시터 면세점, 부산면세점, 알펜시아를 각각 선정해 발표했다.

김재현 기자 oldfield@donga.com

경제현장.jpg

갤러리아명품관에 등장한 신개념 크리스마스 장식품



성탄절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오너먼트(장식)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모델이 18일 서울 강남구 갤러리아명품관에서 아이슬란드 전통 설화에 등장하는 13명의 장난꾸러기 산타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로보 산타 캐릭터와 크리스마스 아이콘들로 구성된 오너먼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정정욱 기자·사진제공 | 한화 갤러리아

‘리니지2 레볼루션’ 또 일냈다...양대 마켓 매출 1위

〈앱스토어·구글플레이〉

‘리니지 레드나이즈’와 점전 예고

‘리니지’가 또 한번 일을 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마블게임즈가 지난 14일 출시한 ‘리니지2 레볼루션’(사진)은 16일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양대 마켓서 매출 1위로 올라섰다. 18일 기준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출시돼 시장에 연착륙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레드나이즈’와 치열한 순위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레볼루션은 인기 PC온라인게임 ‘리니지2’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초대형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초기 흥행은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원작의 특징인 광대한 오픈월드와 캐릭터, 공성전, 혈맹 시스템 등을 두루 갖춰 IP파워를 살렸다. 여기에 언리얼엔진4를 사용한 고품질 그래픽과 전 지역 동시접속 환경 제공으로 PC온라인게임 수준의 플레이를 제공한다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장기흥행을 위해선 서비스 안정화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시 초기 게이머들은 플레이가 도중에 끊기는 등 서비스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불만을 호소했다. 출시 반나절 만에 이용자 수 100만 돌파, 출시 당일 다운로드 200만 건 등 한번에 많은 게이머들이 몰린 탓이다. 넷마블게임즈는 안정적 게임플레이를 위해 출시 당일 서버를 기존 100대에서 10대 추가 증설하는 등 대응을 하고 있다.

한편 넷마블게임즈는 게임 내 미션을 완료하면 ‘레드다이아(게임재화)’, ‘A~S급 방구 상자’, ‘S급 집흔석’ 등 혜택을 제공하고 특정 레벨을 달성하면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자주 가는 가맹점 혜택까지 제공 SKP ‘시럽 웰렛’가계분석 서비스

SK플래닛은 온오프라인연결(O2O) 모바일 지갑 서비스 ‘시럽 웰렛’의 결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 생활을 분석하고 개인화된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는 가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스타트업 탠큐브와 협력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결제 후 수신하는 문자 메시지와 입력 정보를 분석해 소비 패턴을 알려주는 탠큐브의 ‘클립’ 멤버십 카드를 시럽 웰렛에서 발급 받으면 자주 가는 가맹점의 혜택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지출 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별, 가맹점별 등 소비 생활 패턴을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 해 알려준다. 또 미리 설정해 놓



모바일 지갑 서비스 ‘시럽 웰렛’의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 생활을 분석하고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는 SK플래닛의 가계 분석 서비스.

은 예산에 따라 분석한 지출 통계 및 예측 보고서를 제공한다. 자주 가는 브랜드, 가맹점 등의 정보를 분석해 시럽 웰렛의 1만여 개 할인 쿠폰, 포인트 혜택 중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안드로이드 ‘클립’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가 시럽 웰렛 앱에서도 ‘클립’ 멤버십 카드를 내려 받으면 된다. iOS 버전은 내년 추가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AK켄텍 대표이사에 임호근...애경그룹 임원 16명 인사

애경그룹은 19일자로 승진 14명, 전보 1명, 외부영입 1명 등 총 16명에 대한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임호근 AK켄텍 상무를 이 회사 대표이사(전무)로 선임했다. 임 신임 대표

임사에 영업부부장(상무보), 의료사업부부장(상무보), AK-VINA 법인장(상무) 등을 역임했다.

또 문상철 애경유화 상무, 최광식 애경화학 상무, 이창훈 AK플라자 상무가 각각 전무로 승진했다. 이영수 AMPL

US자산개발 상무는 AK켄텍 경영전략 부문장(CFO)으로 자리를 옮겼고, 호텔신라·조선호텔·대명 엠블호텔 고양 총지배인 출신 송병호 상무가 수원애경역사 호텔사업담당으로 영입됐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JENN PIERRE 50년 전통과 명성

잔 피엘

50년 전통과 명성

A/S 당일출고

100% 국내생산제품 / 5년 보장 A/S

잔피엘 온풍 전기난로 10주년 기념 50% 빅세일!!

각300대 한정 선착순 판매

1월 8일간 사용기준 1330원(난방비 제외)
기다림 필요없이 1초면 OK!

온풍기능

온풍기능

온풍기능

믿을 수 있는 브랜드가 좋은 이유?

- 최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각지대 내로 전파되지 않는 90도 전향형 난방은 물론 화재위험이 극도로 낮아 안전이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 정확한 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난방 효율이 높고
- 정확한 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난방 효율이 높고

나노탄소 난로 JP-280 ▶ 2kw 광수 39.6㎡ 할인가: 138,000원 ▶ **94,000원**

온풍 원적외선 난로 JP-350 ▶ 3kw 광수 49.5㎡ 할인가: 148,000원 ▶ **148,000원**

온풍 나노탄소 난로 JP-580 ▶ 3kw 광수 66.0㎡ 할인가: 298,000원 ▶ **198,000원**

JENN PIERRE 잔피엘 특판사업부

전국주문전화 / 1644-7636

택배비 고객부담
입금계좌: 농협 485049-56-000764 정금순